

완성 유형 4-3.

What we find funny, comical, or hilarious depends on where we come from, in which country (even which region of a country) we grew up, and what language(s) we speak. There is, of course, a certain communality in what cultures consider comical, but a significant part of the comical and the comedy remains specific to a culture and is, therefore, almost untranslatable. There is, in other words, a direct but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ty and sense of humor. What we see as comical or funny does not only depend on us as unique individuals; on the contrary, it largely depends on our identity as part of a larger social group. For instance, what solicits the highest respect from one group (religious rituals or nationalist celebrations are favorites here) can be seen as comical by those who look at it from the outside, who are embedded in a similarly social but crucially different structure of their own group.

*hilarious 매우 웃기는 * *communality 공통성

* * *embed 깊숙이 묻다

- ① Wit and Its Relation to Personality Traits
- ② How to Translate Humor into Another Language
- ③ Why Exercising Your Sense of Humor Is Important
- ④ Laughter: A Connector to People from Other Cultures
- ⑤ Humor Appreciation: Based on Its Cultural Background

[해석]

우리가 재미있거나, 우습다거나, 또는 매우 웃긴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어느 국가(심지어는 한 국가의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언어(들)를 쓰는지에 달려 있다. 물론 문화들이 우습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통성이 있지만, 우스운 것과 희극성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여전히 한 문화에 특유하며, 따라서 다른 언어로 거의 옮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국민성과 유머 감각 사이에는 직접적이지만 복잡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우습다거나 재미있다고 여기는 것은 독특한 개인으로써의 우리에게 달린 것만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더 큰 사회적 집단의 일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주로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한 집단으로부터 최고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경우 종교적 의식이 나 민족주의적인 기념행사가 선호되는 것인데)이 외부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 그들은 비슷하게 사회적인,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그들 자체 집단의 구조에 깊숙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풀이]

유머는 문화적 고유성이 있어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소속된 사회적 집단의 일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주로 달려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유머 이해: 그것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한다’이다.

- ① 재치와 성격적 특성과의 그것의 관련성
- ② 유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
- ③ 유머 감각을 연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④ 웃음: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과의 연결 장치

[어휘 정리]

- depend on ~에 달려 있다
- region 지역
- comedy 희극(성)
- specific to ~에 특유한
- untranslatable 다른 언어로 옮길 수 없는, 번역할 수 없는
- nationality 국민성, 국적
-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 identity 정체(성), 신원
- solicit 요구하다, 촉구하다
- religious 종교적인
- ritual 의식
- nationalist 민족주의적인
- celebration 기념행사

[지문 흐름 정리]

*지문 내용이 어렵습니다. 말로 전달하면 금방 되는데 이걸 또 글로 하려니 더 길어지네요. 하지만 이 지문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래 내용 중 몰랐던 게 있었다면 반드시 알아가길 바랍니다. 이 지문은 *where we come from*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됩니다.

What we find funny, comical, or hilarious **depends on** where we come from, in which country (even which region of a country) we grew up, and what language(s) we speak.

A depend on B 라고 하면 A가 결과, B는 원인.

몸무게 *depends on* 먹는 양.

: 먹는 양이 원인, 몸무게가 결과.

위 문장에서는 *where we come from*~~ 이 원인

*What we find funny*가 결과.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짐.

앞으로 *where we come from*에 집중합시다!

There is, of course, a certain communality in what cultures consider comical, but a significant part of the comical and the comedy remains **specific to a culture** and is, therefore, almost untranslatable.

여전히 코믹한 것, 코미디는 문화(*where we come from*)에 특정하게 남아 있음

There is, in other words, a direct but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ty** and sense of humor. What we see as comical or funny does not only depend on us as unique individuals; on the contrary, it largely depends on our identity as part of **a larger social group**.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선 B부분이 중요하죠. 이 문장에선 *but* 대신에 세미콜론(:)이 사용됐습니다. 췌든, 중요한 부분은 B입니다. 바로 *a larger social group(=where we come from)*이 되겠네요.

그럼 A 부분에 있던 “*depend on us as unique individuals*”은 무슨 의미일까요? *not only but also* 구문에서 A와 B는 서로 다른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

나는 햄버거뿐만 아니라 치킨도 싫어한다. A와 B는 서로 다른 내용이어야 “뿐만 아니라”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럼 A 부분의 내용은, *where we come from*을 언급했던 B와는 다른 내용이어야 하겠죠. *unique individual*은 ‘내가 속한 사회 (*where we come from*)을 배제한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무엇이 웃기고, 혹은 안 웃기고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를 배제하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더 큰 그룹에 달려 있기도 하다.”

가령, 수업 시간에 강사가 어떤 웃긴 말을 해서 모두가 깔깔 웃는데 어떤 친구 혼자만 웃지 않고 각 잡고 있다고 쳐요. 그 친구가 웃지 않는 원인은, 그냥 그 드립이 그 학생에게는 웃기지 않았던 거죠. 이걸 두고 *as unique individuals*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unique*는 바로 다른 사람,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 혼자! 라고 할 수 있겠죠.

For instance, what solicits the highest respect from one group (religious rituals or nationalist celebrations are favorites here) can be seen as comical by those who look at it from the outside, who are embedded in a similarly social but crucially different structure of their own group.

예시 블라블라~

(17학년도 9평 40번 요약문) [정답률 51%]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In science one experiment, whether it succeeds or fails, is logically followed by another in a theoretically infinite progression. According to the underlying myth of modern science, this progression is always replacing the smaller knowledge of the past with the larger knowledge of the present, which will be replaced by the yet larger knowledge of the future. In the arts, by contrast, no limitless sequence of works is ever implied or looked for. No work of art is necessarily followed by a second work that is necessarily better. Given the methodologies of science, the law of gravity and the genome were bound to be discovered by somebody; the identity of the discoverer is incidental to the fact. But it appears that in the arts there are no second chances. We must assume that we had one chance each for The Divine Comedy and King Lear. If Dante and Shakespeare had died before they wrote those works, nobody ever would have written them.



While scientific knowledge is believed to progress through (A) experiments, an artistic work tends to be (B) to its creator with no limitless sequence implied.

- | (A) | (B) |
|--------------|-------------------|
| ① successive | unique |
| ② successive | valuable |
| ③ controlled | valuable |
| ④ incidental | influential |
| ⑤ incidental | unique |

40. ①

[해석] 과학에서 한 가지 실험은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논리적으로는 이론상 무한한 연속에서의 또 다른 실험으로 이어진다. 현대 과학의 기저에 놓인 근거 없는 통념에 의하면, 이 연속은 과거의 더 작은 지식을 현재의 더 큰 지식으로 항상 대체하고 있으며, 현재의 더 큰 지식은 미래의 한층 더 큰 지식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예술에서는 작품의 무한한 연속은 결코 암시되거나 추구되지 않는다. 어떤 예술 작품도 필연적으로 더 나은 제2의 작품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과학의 방법론을 고려해 보면, 중력의 법칙과 게놈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었고, 그 발견자의 신원은 그 사실에 부수적이다. 그러나 예술에서는 제2의 기회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The Divine Comedy(신곡)’와 ‘King Lear(리어왕)’에 있어서 각각 한 번의 기회를 가졌었다고 추정해야 한다. 단테와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을 쓰기 전에 사망했다라면 결코 아무도 그것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 과학적 지식은 연속적인 실험을 통해 발전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술 작품은 무한한 연속성이 전혀 암시되지 않은 채 그 창작자에게 고유한 경향이 있다.

[풀이] 과학적 지식은 연속적인 실험을 통해 무한히 발전하지만, 예술 작품은 연속성이 없이 그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에게만 고유하다는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연속적인 - 고유한’이 가장 적절하다. ② 연속적인 - 가치 있는 ③ 통제된 - 가치 있는

④ 부수적인 - 영향력 있는 ⑤ 부수적인 - 고유한

[Words and Phrases] logically 논리적으로 theoretically 이론상, 이론적으로 infinite 무한한 progression 연속, 발전 underlying 기저에 놓인, 근본적인, 숨겨진 myth 근거 없는 통념 sequence 연속 methodology 방법론 gravity 중력 bound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incidental 부수적인,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는

(17년 3월 학평 31번) [정답률 63%]

31. Recent research by Juliet Zhu and J. J. Argo suggests that making subtle changes to the seating arrangements in meetings can have an effect on what people choose to focus their attention on. For example, the study found that circular seating arrangements typically activated people's need to belong. As a result, they were more likely to focus on the group's collective objectives and be persuaded by messages and proposals that highlighted group benefits rather than benefits to any one individual. This effect was reversed, however, when the seating arrangement was either angular (think L-shaped) or square. These seating arrangements tended to activate people's need for _____. As a result, people were more responsive and reacted more favorably to messages and proposals that were self-oriented and that allowed them to elevate their individualism.

- ① uniqueness ② safety ③ certainty
④ harmony ⑤ fairness

[해석]

Juliet Zhu와 J. J. Argo의 최근 연구는 회의에서 좌석 배치에 미묘한 변화를 주면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원형 배치는 사람들의 소속 욕구를 활성화했다는 것을 연구는 알아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집단의 공동 목표에 집중하고 어느 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메시지와 제안에 설득당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좌석 배치가 각지거나(L자 모양을 생각하라) 사각일 때 뒤바뀌었다. 이런 좌석 배치는 고유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지향적이고 자신들의 개인주의를 고양하게 하는 메시지와 제안에 더 관심을 보이고 더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어휘]

subtle 미묘한

seating arrangement 좌석 배치

have an effect on ~에 영향을 끼치다

circular 원형의

activate 활성화하다

collective 공동의, 집단적인

objective 목표

persuade 설득하다

highlight 강조하다
reverse (정반대로) 뒤바꾸다
angular 각진
responsive 관심[열의]을 보이는
favorably 호의적으로
self-oriented 자기 지향적인
elevate 고양하다, 높이다
individualism 개인주의

*이렇듯 unique가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unique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을 기억하면 해결~ 이번 수능에 unique가 선지로 나왔을 때, 꽤 많은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고 그럼 오답률이 올라갈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문제 풀어도 될까요? ^^